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4/14~2025/04/20]

2025.04.21

[로봇] 중국의 휴머노이드 마라톤

- 두산로보틱스휴머노이드 진출 의지. 로보티즈는 세미 휴머노이드 공개
- 한국에도 로봇 AI 기업 탄생하나. 리얼월드 210억 글로벌 시드 투자 유치
-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국가 표준이 제정되고 휴머노이드 하프마라톤이 개최됨

[방산] 폴란드 사업 진행 현황 체크

- 이번에는 UAE의 KF-21 도입 관심.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는 페루의 전차사업
- 한국 대선 레이스 시작. 보수/진보 관계없이 방위산업 육성 강조
-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음

[항공] 에러페어가 아닌 공정위 조치

- 여행 심리 얼어붙는 모습. 5월 연휴와 6월 임시공휴일 반전 기대
-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 속 보잉 항공기 수령 거부. 약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잉
- 일본의 ANA가 싱가포르항공과 JV 체결. 대한항공과의 경쟁 심화 예상

[조선] USTR의 중국 조선업 견제

- USTR 수수료 부과안 확정. 초기안보다 다소 완화
- HD한국조선해양, 상선 수주 흐름 계속. 미포의 LPGC 수주, 현대중공업의 탱커 협의
- KDDX 사업 향방, 24일 분과위원회에서 결론 나올지 주목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중국의 휴머노이드 마라톤

중국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개최. 하드웨어의 극한을 테스트하는 자리. 분명히 과거 대비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한계 노출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9)

[중국의 휴머노이드 마라톤]

-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첫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21km)이 개최됨. 예선 통과한 21개팀 참여하여 6개팀이 완주. 대회 결과는 베이징 휴머노이드 혁신센터의 '텐궁'이 2시간 40분의 기록으로 1등을 차지. 중국은 로봇 하드웨어의 극한을 테스트 한 점에 의미를 부여. 과거 DARPA 챌린지를 떠올리게함. 확연히 보행 속도는 빨라졌지만 여전히 인간보다 두배 이상 느린 수준이었고, 주행 도중 3번 배터리를 교체하는 등 하드웨어의 한계를 노출. 휴머노이드는 작업성을 갖추어야하는데, 이를 확인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 유니트리 등 휴머노이드 주요 업체들 대부분 불참해, 정확한 기술 수준 파악은 어려움. 기술 수준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나, 중국의 로봇 굴기는 위협적인 점은 명백

Key Chart: 마라톤에 참여한 주요 기업/기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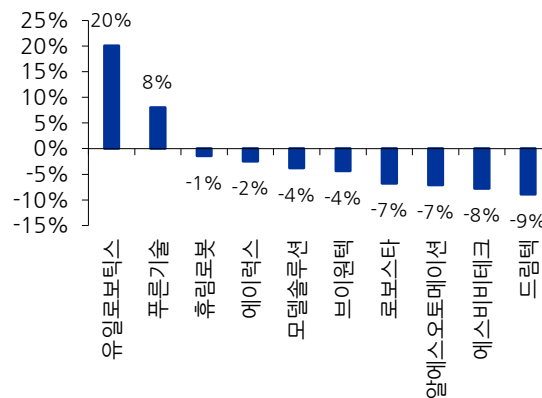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4/14~04/20)

[산업용 로봇]

- 두산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
- 나우로보틱스 5월 8일 코스닥 상장 예정

[서비스 로봇]

- CJ대통, 레인보우로보틱스와 AI 휴머노이드 물류로봇 개발
- 로보티즈, 쓰레기봉투 버려주는 '헬퍼 로봇 서비스' 시작
- 위로보틱스, 차세대 웨어러블'웜' 출시. 무게 20% 감소
- 배민 서빙로봇 '비로보틱스', 지난해 실적 후퇴
- 배민 "올해 양산형 AI 자율주행 로봇 준비"

[기타(정책/부품/SW)]

- 로보티즈, 피지컬 AI 기반 작업형 휴머노이드 공개
- 피지컬 AI 리얼월드, 210억원 규모 시드 투자 유치
- 인튜이티브서지컬-서울시, 150억 규모 투자유치 MOU
- 로봇산업진흥원, 로봇 스타트업 1.7억원 지원
- 대구광역시, 다목적 이동형 양팔 협동로봇 개발 추진
- 서울로보틱스, 기술평가 통과. 자율주행 1호 상장 시동

[Global]

- 中, 첫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 표준 제정
- 베이징서 세계 첫 '로봇 하프마라톤' 개최. 21대 출전
- 中 유니트리 G1 내달 인터넷으로 격투기 실험
- 中 올해 1만대 휴머노이드 제작해 글로벌 절반 차지
- 中 푸리에, 오픈소스 휴머노이드 로봇 '푸리에 N1' 발표
- 인도軍, 미얀마 지진 구조에 고스트로보틱스 로봇 투입
- 스위스 ABB, 내년 2분기까지 '로봇사업부문' 분사
- 허깅 페이스, 프랑스 휴머노이드 기업 '폴렌로보틱스' 인수



Weekly Keyword

폴란드 사업 진행 현황 체크

폴란드 국방차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의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업데이트.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K-2 전차를 비롯해 주요 체계들 현지 양산 준비 진행 중. 중장갑차와 잠수함 사업도 기대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27)

[폴란드 사업 진행 현황 체크]

- 지난 주 Defense 24에서 폴란드 국방 차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 한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 (K-2, K-9, FA-50 등)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 중. K-2 2차 계약 체결은 양측 협의에 따라 늦어질 뿐 높은 계약 체결 의지 확인. K-9PL도 최근 폴란드 크랩 자주포 추가 양산에 따라 2-2차 이후 계약 무산 리스크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현지 양산 준비 진행되고 있는 점 확인. 중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해외 파트너 고려하고 있고, 오르카 프로젝트도 모든 제안을 검토하고 있어, 레드백 및 잠수함 수출 불씨도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 가능함. FA-50PL은 미사일 통합 등 이슈로 일정 지연 가능성 있음. AIM-9X는 통합 승인 받고, AIM-120는 미국 허가 대기

Key Chart: 폴란드 수출 사업 진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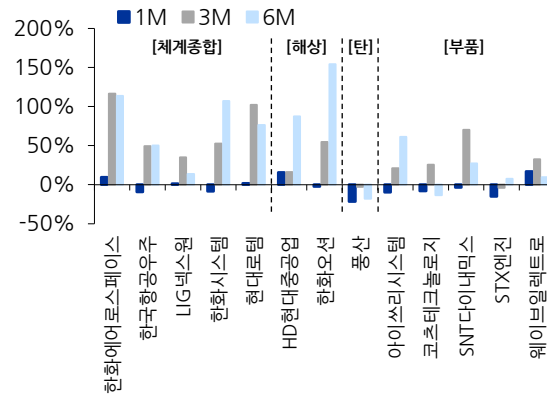
구분	내용
K-2PL 2차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틀의 협의는 완료 ■ 현대로템-PGZ간 기술 이전, 업무 분담 조율 중
K-9PL 및 Hom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9PL도 현지 양산 예정 ■ 천무 유도탄 및 천무 모듈도 마찬가지
중장갑차(CBWP)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GZ 그룹과 협의 중 ■ 해외 전략적 파트너 선정 가능성 배제하지 않음
FA-50P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FA-50PL에 AIM-9X 통합을 승인 ■ AIM-120는 타당성 조사 허가 신청 중, 예비 승인 받음 ■ 통합 과정 지연으로 25년 PL 도입 지연될 가능성 있음
오르카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숏리스트 없고, 모든 제안 분석 중

자료: 언론보도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4/14~04/20)

[수주/계약]

- 현대로템 K2 전차 2차 계약, 5월 체결 가능성
- 필리핀軍 수장 "한국산 FA-50 12대 추가 도입 확신"
-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 수리온 2대 도입 추진
- 현대로템 K2전차 페루서 전차 교체사업 수주전 예열
- 공군총장, UAE 사령관과 천궁 II·KF-21 협력 논의
- 캐나다, F-35 대안 모색 속 한국산 KF-21 주목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유도탄' 합작법인 설립
-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와 산학협력 강화. 현지화 본격화
- 한화에너지 등 3개사, 1.3조 한화에어로 유증 참여 결의
- 한화시스템, 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
- KAI, 6세대 전투기 개발 시동. 한화·LG넥스원과 '원팀'
- 대한항공 방산 사업 5년 연속 적자 기록하며 악전고투

[기타]

- 이재명 후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 포부
- 한-UAE, 국방·방산협력 강화. 중동 최초로 공군회의 정례화
- K-방산 삼양컴텍 코스닥 예심 통과

[글로벌]

- 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미 방산조달협정 필요성 언급
- 팔란티어, 전쟁 전략 AI 시스템 나토(NATO)에 납품
- 라인메탈 CEO, 10년내 주문량 최대 3,000억 유로 가능성
- 독일 차기 총리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제공 의향"
- 네타냐후 "가자지구 승리 때까지 전쟁 계속"
-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사업 참여 희망



Weekly Keyword

에어페어가 아닌 공정위 조치

최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 가격이 화제. 공정위의 행태적 조치 부과 영향으로 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 운임 인상 불가. 에어프리미아 진입 통한 경쟁 제한 완화될 필요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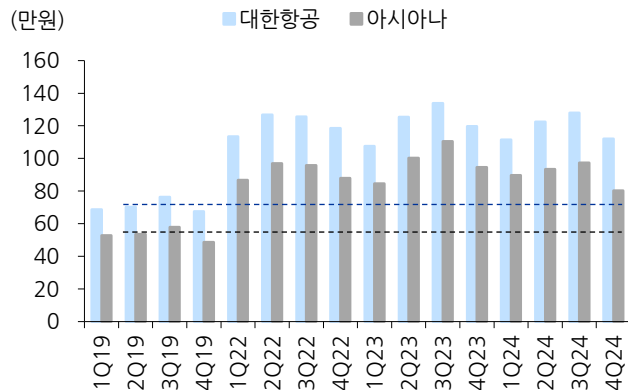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7)

[에어페어가 아닌 공정위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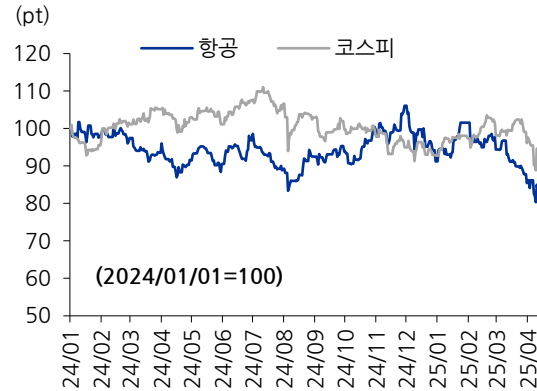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의 저렴한 티켓 판매가 화두. 인천-뉴욕 왕복 100만원선, 인천-샌프란 70만원 내외 등. 일각에서는 에어페어 가능성을 제기하나, 이는 양사 합병에 따라 공정거래위가 부과한 이행조치 영향임. 공정거래위는 행태적 조치로 경쟁제한 노선에서 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 항공 운임 인상을 금하고 있음. 유럽 노선의 경우 티웨이항공(Remedy Taker)가 노선 이관 받아 취항하며 영향이 제한적이나, 미주는 아직 에어프리미아의 진입이 완료되지 않아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에어프리미아는 최근 항공기 결함 이슈로 7대 중 3대가 운항 중단되어있는 상황. 빨라야 하반기 경쟁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Key Chart: 미주 노선 운임 단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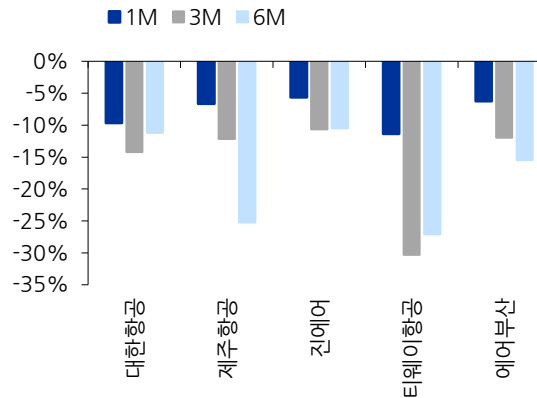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4/14~04/20)

[여객/화물]

- 3월 카드 결제 추정액, 여행업 카드 결제액 29% 급감
- 인천공항, 5월 연휴 7일간 148만명 이용 전망
- 대한항공, 인천-일본 고베 노선 신규 취항
- 엔화 강세에 일본 수요 위축. 중국 노선 다변화가 불가피
- 에어부산, 부산~울란바토르 재운항-엔지 증편
- 5월 황금연휴, 목적지 상관없이 저렴한 항공권 선호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과 임금 맞춰달라. 아시아나 화물 매각 난항
- 제주항공, 6월부터 상용고객 우대제도 '멤버스' 개편
- 티웨이, 성수기 여객 실적 'LCC 1위 등극'
- 제주항공, 1분기 정비 지연율 개선. 운항 안정성 강화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M&A 추진

[기타]

- 항공사들 다음달 발권 국제선 유류할증료 하향 조정
- SKT-SK텔링크, '기내 와이파이 로밍' 세계 최초 출시
- 무안 대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 제출
- 에어서울, 폐쇄공포증 승객이 비상구 개방. 이륙 취소

[글로벌]

- 중국 항공사, 고율 관세에 보잉 항공기 인수 보류
- 日최대 항공사 ANA-싱가포르 JV사업 시동
- 핀에어, 2026년 하계 시즌 북유럽 네트워크 확대
- 러시아, 미국에 항공사 제재해제 요구, EU는 난색
- 유나이티드, 수요부진 속 연간 가이던스 하향 가능성
- 아처, 뉴욕 시내와 주변 공항 이동 서비스 제공 추진



Weekly Keyword

USTR의 중국 조선업 견제

USTR의 조선업 견제 관련 수수료 부과안이 확정. 초기안 대비 강도는 다소 약해졌음. 그러나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것은 변함없음. 선주들이 한국 발주를 선호할 포인트는 남아있다는 판단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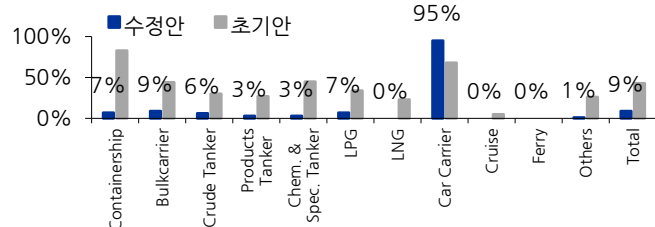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

[USTR의 중국 조선업 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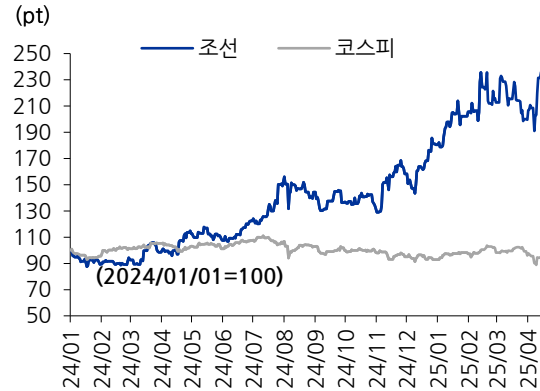
■ 미국 USTR의 중국 조선업 견제를 위한 수수료 부과가 확정. 결론적으로, 수수료 부과 대상의 범주가 크게 축소되고, 수수료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됨. 과거에는 입항 선박의 중국산 여부와 더불어, 운영자의 선대 및 발주 잔고 내 중국산 선박 비중도 추가 수수료 부과와 포인트였음. 이번 확정안에서는 선대와 발주 잔고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 그리고 기항 횟수에 관계없이 첫 입항시에만 수수료 부과하고, 수수료 부과는 연간 5회를 초과하지 못함. 클락슨은 미국 전체 기항의 9%만 영향을 받을 것이며 초기안(43%) 대비 크게 완화되었다고 평가. 중국 선사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 없어져 제재 강도가 강화되었으나, 중국 외 선사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함. 시행까지 180일 유예기간과 3년간 단계적 상향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선대 재배치 등 준비기간 부여. 중국 외 선사가 중국산 선박을 미국에 투입할 경우 선가 대비 10% 가량의 수수료 부과가 예상되어 부담이 되는 것은 변함없음. 강도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한국을 선호할 포인트는 남아있음.

Key Chart: 미국 기항 중 USTR 영향 받는 기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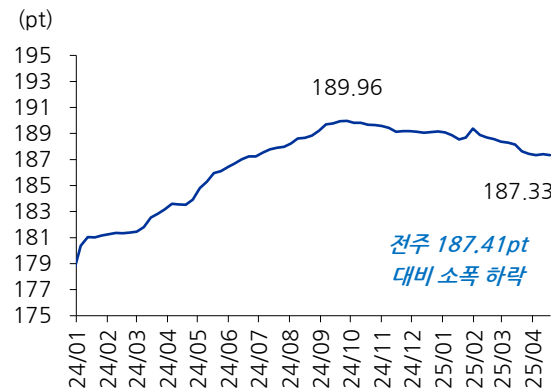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4/14~04/20)

[상선/해양]

- 美 USTR 중국 입항수수료 결정. 한국 조선 반사수해
- HD현대미포, 유럽선사와 LPG 운반선 2척 계약 체결
- HD현대중공업, CMB Tech와 탱커 4척 건조 협상
- HMM, 135억불 투입해 컨테이너선 대대적 확장 계획
- 양명해운, 중대형 컨테이너선 10척 발주. 국제 입찰 실시
- 삼성중공업, 中 '통하청' 전략 강화. 유조선 4척 또 맡겨
- HD현대미포, 세계 최대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진수
- 한화오션, 페트로바스 P-86 FPSO 수주 경쟁 참여

[특수선]

- KDDX 사업자 선정방식 결론 임박. 수의계약 전망
- 한화오션, 폴란드 수주위해 1억 달러 현지 투자 제시
- 美 보수 싱크탱크 "존스법 폐지·한미국방조달협정 필요"
- 주한미해군사령관 HJ중공업 방문, MRO 협력 방안 논의

[기타]

- 삼중, 프랑스 GTT에 초대형 에탄운반선 2척 설계 발주
- HD현대중공업, 모로코 신조선소 운영권 입찰 유력 후보
- HD현대마린엔진, 삼성중공업에 803억 규모 선박엔진 공급
- HD현대마린엔진, 358억원 규모 선박엔진 공급계약

[글로벌]

- 中 벌크선 수주 트럼프 견제 효과에 32년 만 최저치
- MSC, 보유 컨테이너선 900척 돌려